

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5 (2009. 11), 231-239

예술평론

시간을 달리는 소녀: 포스트모던 시대의 인류를 향한 묵시록

김 영 수*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이른바 ‘성장문학’류에 속하는 만화영화이다. 표면적인 이야기의 소재는 사춘기 소녀의 우정과 사랑이다. 사내애 같은 성격의 마코토가 우정으로부터 사랑에 눈 떠 간다는 흔한 이야기이다.¹⁾

2007년 6월쯤, 안 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강남 CGV에서 이 영화를 봤다.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본 것은 아니고, 안 사람이 이 영화에 대한 감상문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큰딸 해민이가 좋아하는 영화였다. 일곱 살 해민이에게는 너무 지루한 영화였기 때문에, 해민이는 포테토와 콜라를 다 먹은 다음에는 몸을 비틀면서 없는 인내심을 무한히 발휘해야 했다.

이 영화에는 덜렁거리는 성격의 주인공인 17세의 소녀 곤노 마코토(紺野眞琴)의 이야기가 코믹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웃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웃음 속에 잔잔한 슬픔이 있다. 애이불비(哀而不悲)의 센티먼트로, 감동이 가

* 영남대학교

1) 2006년 만화영화로 제작된 이 작품의 원작은 1967년 간행된 츠츠이 야스다카(筒井康隆)의 청소년 SF소설로서, 1983년 영화화되어 크게 히트했다. 원작 소설의 2세대 작품으로, 원작 발표 20년 후를 무대로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그린 속편이다.

숨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흐른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코미디와 트래지디가 깊은 곳에서 만난 작품이다. 그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인간의 이야기, 휴매디(humady) 또는 휴매지디(humagedy)이다. 인간의 가장 심오한 감성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주책없이 자꾸 눈물을 흘렸다. 40대가 되면 눈물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내가 더 인간적으로 된 것이라기보다 내 신체의 흐름이 변한 것일 따름이다. 그러나 40대란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40을 불혹이라고 하니, 세상의 신산을 어느 정도 맛본 나이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악한 사람이라도 삶의 비애를 모를 리 없다. 그것은 삶에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도 안다는 뜻이다. 삶이란 무엇인가를 상실해 보지 않고는 진실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마코토의 이야기가 40이 넘는 사람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유는 그 때문일 것이다.

마코토의 이야기는 사춘기 소녀의 철없는 해프닝이 아니다. 인간에게 상실된 것, 그리고 상실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인류학적이고 묵시록적이다. 종교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가 색다른 것은 이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영화의 감독은 깊은 절망을 거쳐 이제 희망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런 삶의 성찰이 표현될 때 그것은 ‘자유’롭다. 희망은 아직 절망의 언저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는 희망을 넘어서 있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종교보다 더 종교적이다.

이 영화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한 순간이 있다. 미래로부터 온 소년 치아키(間宮千昭)가 미래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곳이다. 사실 이 한 장면을 위해 이 영화가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친구 마코토가 큰 부상을 당하고, 또 다른 친구 츠다 고스케(津田功介)가 기차에 부딪혀 죽는 곳에서, 치아키는 미래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렸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치아키는 그 기회를 과거로 돌아가는 데 썼다.

치아키가 미래로부터 온 목적은 그가 살던 세계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과거 어느 한 때, 바로 마코토와 고스케가 살고 있는 시대에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어떤 ‘그림’때문이었다. 치아키가 ‘시간도약’ *time leap* 을 할 수 있는 것은 호두알 모양의 작은 기계 덕분이었다. 치아키는 이 기계로부터 정기적으로 충전을 받아야만 시간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는 이 기계를 우연히 잃어버렸다.

다행히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라도 자신이 살던 미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치아키는 이곳에서 마코토와 고스케를 만났다. 한 고등학교에서 그들은 친구가 되었다. 방과 후 그들은 야구장에서 배팅과 캐치볼을 하면서 우정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의 꾸밈없는 우정 속에 사춘기 소년 소녀들의 사랑이 자라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뒤틀리기 시작한다.

우정은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고 나눌수록 커진다. 그러나 사랑은 오직 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사랑은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사랑은 독점적이기 때문에 우정보다 강하다. 우정은 독점될 때 상실되지만, 사랑은 ‘독점’을 상실할 때 사라진다.

사랑이 싹트면서 세 사람의 티 없는 관계는 갑자기 복잡해졌다. 우정은 사람 사이를 단순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복잡하게 만든다. 우정은 많은 사람을 연결시키면서도 그들을 하나로 만들지만, 사랑은 단 두 사람만을 하나로 만들고 나머지는 배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지도 않는다. 사랑은 둘이 하나임을 부단히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 됨에 대한 집착이자 하나 되지 않음에 대한 불안이다. 이 집착과 불안은 사랑의 이름으로 장식된다.

여기에 사랑의 변민이 있다. 하나여야 하지만 하나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나 거기에 있다. 나는 나로서 완전하지 않으며, 결핍된 존재이다. 그리움은 결핍의 인식이다. 우정은 나로서 완전하지만, 그러나 친구와 함께라면 더 크고 완전하다. 우연히 ‘시간도약’ 능력을 갖게 된 마코토

가 끝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세계가 낯설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춘기란 이처럼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방황하는 정신의 풍경이다.

마코토는 이 복잡한 사랑의 미로에 빠졌다. 그것은 성장하고 있는 소녀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복잡한 정신이 세 명의 친구 사이에 수많은 인과의 사슬을 탄생시켰다. 그 인과의 마지막 고리가 마코토의 부상과 고스케의 죽음이다. 이 사슬을 끊고 두 친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치아키는 미래로 가는 것을 포기했다. 우정을 위해 이 세계에 남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가 일찌감치 미래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도 실은 두 친구와의 우정 때문이었다.

치아키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갑자기 세상은 정지된다. 복잡한 동경 거리의 차들과 오가는 사람들은 갑자기 색깔을 잃고 흑백의 풍경으로 변한다. 모든 동작은 빙결된다. 이 세계에는 치아키와 마코토만이 살아 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이야기가 안타깝고 길게 이어진다. 그것은 이 대화가 인간성에서 최초의 사건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성의 창조이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이 대화에서 악동 치아키는 미래 인류의 선지자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는 미래 인류의 이러저러한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대화는 안타깝다. 치아키가 계속 사라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래의 인류에서 인간성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힘겹고 희미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인류의 목시록인 것이다.

치아키는 야구 때문에, “너희와 함께 노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미래로 갈 수 없었다. 왜? 미래에는 야구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없어졌다기보다 더 이상 공을 던지고 받는 친구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래에도 스포츠로서의 야구는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우정의 드러남이 아니다. 미래의 야구는 단지 상업적인 몸동작, 혹은 경

쟁적인 두 팀의 결전,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야구는 존재하지만, 진실로 야구는 사라졌다. 미래의 인간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과거로 오는 자유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과학과 기술이 꿈꾸는 미래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영화에는 또 다른 신비인이 있다. 마코토의 이모 요시야마 카즈코(芳山和子)이다. 동경국립미술관에 근무하는 그녀는 노처녀이다. 마코토의 어머니인 그녀의 언니는 동생 카즈코가 언제나 결혼할 것인지 늘 걱정이다. 마코토에게 그녀는 ‘마녀 이모’이다. 늘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도약’을 알게 된 것도 그녀를 통해서였다. 그녀는 어떻게 이 비밀스런 일조차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손상된 어떤 그림을 원상회복하고 있었다. 그녀에 따르면 이 그림은 인류가 대참화에 빠져든 전쟁기, 아마도 2차대전 중에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러나 이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 작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 그림이 완성된 날, 카즈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져.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녀가 이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매우 암시적이다. 그녀 역시 마코토처럼 그 옛날 소녀 시절에 두 명의 남자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디론가 떠나 버렸다. 언니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카즈코가 시집을 가지 않는 이유는 빛바랜 사진 속에 남아있는 그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그러나 카즈코에게 그들이 돌아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그 그림이 뜻하고 있는 무엇이다. 카즈코와 그 그림은 현실적으로 미술관이라는 공간과 그녀의 직업으로 인해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것에 의해 운명지워져 있다. 그것은 그 그림이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다. 그

녀는 그것을 상실했다. 상실된 것에 대한 그리움이 그녀를 그 그림에게로 인도한 것이다. 그 그림은 떠나간 그녀의 친구들, 혹은 그 본질이다.

카즈코가 마코토의 신비로운 조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코토는 우정의 세계 속에 있고, 우정 그 자체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찰(reflection)은 상실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상실을 경험하지 않은 존재는 단지 그 속에 있을 뿐, 그것을 알 수 없다. 마코토가 에텐의 동산에 살았던 인류를 상징한다면, 카즈코는 실낙원 뒤의 고통 속에서 다시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인간을 상징하고 있다.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그림은 바로 치아키가 미래로부터 보러 온 그림이었다. 미래에는 그 그림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그 그림은 미래의 인류가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고통과 참화 속에서도 상실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이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인간이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해도 인류는 더 이상 인간일 수 없으며, 삶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치아키가 선지자인 것은 그러한 미래의 인류 세계에서 오직 그만이 그것의 상실을 알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위험한 과거로의 여행을 감행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미래의 인류는 아마도 자신들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매트릭스’의 세계처럼.

마코토의 세계에는 아직 그 그림이 존재하고 있기는 했지만 손상되어 있었다. 더구나 그 그림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미술관에 묻혀 있었다. 마코토의 세계 역시 위기의 시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카즈코는 바로 미래의 치아키이다. 아마 그 옛날 어느 때가, 카즈코는 그 그림을 그렸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그림은 언젠가 또 다시 사라질 것이다. 미래의 치아키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과거로 온 치아키는 결국 그 그림을 보지 못했다. 그가 본 것은 마코토와 고스케라는 친구, 그리고 그들 사이의 ‘우정’(friendship) 뿐이었다. 마

코토는 그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치아키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그림. 미래에 가서 봐. 이제 없어지거나 타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사는 시대에도 남아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해 볼게.”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마코토는 카즈코와 치아키 만이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세계에 합류한다. 단순한 친밀감의 세계를 넘어 인류에게 무엇이 상실되면 안 되는가를 성찰하는 자들의 세계. 그리하여 카즈코는 마코토에게로, 마코토는 치아키에게로 연결된다.

『주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석과(碩果)’라고 부른다. 하늘이 마지막 인류를 위해 감추어 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과일들인 것이다. “양상하게 뼈대가 드러난 나무의 가지 끝에서 빛나는 가장 크고 탐스러운 씨 과실은 한 개에 불과하더라도 희망이다. 그 속에 박혀 있는 씨는 이듬해 봄에 새싹이 되어 땅을 뚫고 일어서기 때문이다.”(신영복)

그러나 치아키는 마코토와 고스케와의 우정 속에서 이미 미래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은, 아니 미래로 돌아가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 치아키는 미래로부터 온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것일까? 아마도 치아키는 더 이상 그림을 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보고자 했던 것은 이미 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렌트의 말처럼 세계는 너와 나 사이에 있다. 그 세계가 사라질 때 인류의 삶은 절망적인 것이 된다. 아렌트가 20세기 인류의 전쟁과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기원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였다. 그 세계에서 인류는 인류에 대해 가장 참혹한 살육자로 변모했으며, 노예의 문명을 완성했다. 나치즘과 파시즘, 스탈린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바로 근대문명의 가장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치적이자 문명적인 문제이다. 과학은 자연과 사회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약속했지만, 인류는 우정을 나눌 너와 나 사이의 공적 세계(public realm)를 상실했다. 개인의 자유를 획득했지만, 인간의 자유는 상실되었다.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과학이 만들어 낸 세계의 특징은 공간과 시간의 축소 또는 소멸이다. 산업화는 동력기계에 의해 공간과 시간을 압축했다. 정보화는 지리적 공간 대신 가상적 공간(cyber space)을 만들어냈다. 그 공간에는 시간도 없다. 21세기 인류의 삶은 이곳으로 대대적인 이동 중이다. 시장도, 정치도, 교제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가상화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코토의 부상과 고스케의 죽음은 기술적으로 ‘속도’(speed)로 인한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면 지나가는 기차, 그 건널목을 향해 고스케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렸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파열되었다. 마코토 역시 그곳에서 한 번 죽었었다. 브레이크 파열을 안 마코토는 고스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지만 또 다른 충돌로 중상을 입었다.

이 장면에서 세 가지의 속도가 경쟁하고 있다. 기차, 자전거, 그리고 인간. 기차가 가장 빠르고, 다음으로 자전거가 빠르며, 인간이 가장 느리다. 속도의 차이는 기계화의 정도에 좌우된다. 셋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 더 기계화된 것은 더 강하다. 기차와 자전거는 모두 ‘속도’를 압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이다. 그러나 자전거라는 소박한 기계는 기차를 이길 수 없다. 신이 만든 인간이라는 더 원시적인 기계는 자전거도 이길 수 없다. 셋의 충돌은 자전거의 파괴, 그리고 그 위에 탄 인간과 달리는 인간의 죽음 밖에 없다.

그러나 기차는 자전거도 인간도 알지 못한다.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공간을 무심히 지날 뿐이다. 기계는 더 약한 자에게 양보하는 미덕이 없다. 기계 앞에서 인간은 열등하다. 인간은 어느 경우 자전거의 속도조차 제어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인류는 시간 자체를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

인류는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핵전쟁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 낸 속도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는 세상에 언제나 존재해 온 염세주의 철학의 음산한 독백만은 아니다. 문제는 핵의 위협이 눈에 보이는 반면, 속도의 위협은 잘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이 경고하는 위

험사회(risk society)란 과학이 만들어낸 속도와 속도의 아들인 근대사회를 가리키고 있다. 위험사회는 과학적 합리성과 근대성의 임계선상에서 시작된다. 현대 산업사회는 무모한 위험을 산발적이고 우발적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본질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험은 국가나 계급을 뛰어넘어 전지구적인 것이다. 과학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반합리적이다.²⁾ 이 영화에서 야구와 자전거는 느낌의 메타포이다. 그리고 느낌이 없다면 인간의 우정은 서식처를 잃어버릴 것이다.

마코토는 원생적 우정의 세계이며, 치아키는 성찰적 우정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치아키는 마코토와 고스케도 없는 미래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미래의 인류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로 떠가기 직전 치아키는 마코토에게 “미래에서 너를 기다릴게”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코토는 “응, 금방 갈게. 뛰어 갈게.”라고 답하고 있다. 그것은 치아키와 마코토로 인해 미래에도 우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 산업에 의해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삶에 가져온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근대적 자유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호소다 마모루(細田守) 감독은 인류의 미래가 그 모든 것을 성취한 뒤, 마침내 ‘우정’을 상실할 것이라는 묵시록적인 예언을 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우정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슬프게, 그리고 아주 ‘자유’롭고 태평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의 <미래소년 코난>의 또 다른 버전이다. 코난이 모던한 시대의 인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마코토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인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본 만화는 아직도 첫 탄생기의 위대한 정신을 상실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

2) 자연과 미신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었던 과학이 오히려 존재 망각의 근원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과학이 인간의 실존이 아니라 합리성 그 자체를 목적화하였기 때문이다.